

“100원으로 어려운 이웃에 희망 전해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부, 10월 23일 희망불씨 콘서트

1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생명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0월 2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0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2006년부터 시작한 희망불씨 콘서트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콘서트에서는 부산불자들에게 희망저금통을 배부하고 난치병 환우를 위한 모금 활동 및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활동 홍보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본부장 원범 스님, 부분부장 자인 스님(김상사), 부분부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혜우 스님(약수사), 정관 스님(원오사), 주석 스님(대운사)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콘서트 1부 '희망의 메시지'는 10년 동안 기부에 동참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해동과 파라미타에게 생명나눔 표창장이, 홍보이사 혜산 스님, 이사 신성애에게 부산광역시 시장상이 수여됐다. 해동과 파라미타와 개인택시불자회는 생명나눔기금을 본부에 전달하며 자비

나눔에 동참했다.

2부에서는 월호 스님과 함께하는 생명 존중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월호 스님은 "생명나눔활동 동참을 통해 남을 돕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서트에서는 유전성 혈우병을 앓고 있는 5세 정태승 환아의 사연이 소개돼 좌중

10돌 맞은 난치병 환우 돕기

100원의 작은 정성 모아 기부

1000여 부산불자 한마음으로 축하

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불자들은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편마비 및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병원 치료비 뿐 아니라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다.

콘서트는 이어 수월 스님의 무대를 시작으로 MBC 강변가요제에서 데뷔한 불자가 수 김혜정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김혜정 씨는 자폐아 아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장애



‘제10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현장에서 모금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자들

우들과 환아들을 위한 기부 활동과 모금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 연주자들의 모임 '음악대륙 가이아'의 화려한 공연으로 무대는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참가자 김희정(56)씨는 "오늘 콘서트는 눈과 귀가 즐거울 뿐 아니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며 "환우들을 위해 노력하는 생명나눔의 활동을 더 많은 불자들이 알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본부장 원범 스님은 "작은 나무가 모

여 큰 숲을 이루듯, 모든 것은 작고 적음에서 시작한다. 100원에 담긴 희망메시지가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우들의 치유는 물론 자살예방에 이르기 까지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장기기증 결연, 한혈증 지원, 자살예방 및 난치병 환우 돕기 등을 통해 생명존중 및 복지 사회를 위해 활동해왔다. 매월 두 명의 환우를 선정하고 치료비를 전달한다. 2015년에도 총 7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하성미 기자

2015부산불교합창제 11월 11일 개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조옥자)는 11월 11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생명·사랑·나눔·보시를 주제로 '2015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합창제에는 범어사 합창단, 삼광사 화엄합창단, 흥법사 불광·간파모래 연합합창단, 정각사 만다라합창단, 영주암·금강암 연합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남성 아카펠라 '클럽 푸미스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 지역 뿐 아니라 충북 불교연합합창단, 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악합창단 등도 대거 참가한다.



2014년 합창제 모습

조옥자 회장은 "아름다운 해조음의 향연 속에서 올미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희망을 설계하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으로 합창제를 열고자 한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재가중심 범림대구선원 10월 24일 개원

재가자 중심 범림대구선원(선원장 이제열)이 10월 24일 대구 남구에서 개원했다. 범림에는 임병현 남구청장과 지역기관단체장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범림에서는 김희국 국회의원,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장, 임문우 대구경북대불련회장 등도 참석해 범림대구선원 개원을 축하했다.

이제열 선원장은 "재가신행조직 범림은 재가중심, 수행중심, 정법구현, 자비실천으로 대구지역에서 불교포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수행결사체 범림은 지난 1991년 이제열 법사에 의해 창립돼 그동안 신행혁신, 정법교육 등 재가운동을 추진해왔다. 2014년 전국 범림 임원회의를 통해 대구선원 개원을 추진해왔다.

범림은 향후 서울과 부산,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선원을 건립하고 재가 신행문화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경전연구원 설립과 새로운 재가 포교전략 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053)628-0108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혜사, 중악은빛 산사음악회 열어

영천 은혜사(주지 돈관)는 10월 24일 경내에서 창건 1206주년 개산대제와 중악은빛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산대제에는 은혜사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대구가톨릭대 정호규 교수(신부) 등 2000여 대중이 함께했다.

돈관 스님은 "하나가 우주요, 우주가 곧 하나 라는 깨달음의 정신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은혜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정숙 관음물산 대표는 장학금 및 교구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교구장 돈관스님에게 전달했다. 식후 작은음악회로 선화여교 관악부 맨스의 무대가 펼쳐졌다.

은혜사 조실 혜인 스님은 "은혜사의 광



명으로 눈부신 이 뜻 깊은 날에 함께 자리한 일체의 모든 불자들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이루길 바란다"며 "모든 인류가 자기의 본래 면목 주인공을 찾고 생각하면서 멋진 세상을 살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응공조계종, 상해 용주사와 교류 논의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0월 22일 중국 상해 용주사(주지 당가)에서 포교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월 20~24일 진행된 중국 성시순례 중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 의원 혜담 스님,

홍원 스님, 수덕 스님, 해산 스님 등 응공조계종 신도 30여명과 용주사 주지 당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응공조계종과 용주사는 신도 친선방문 및 교류 정례화를 약속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만유가 부처, 화엄세상 ‘사경’ 하며 지혜 구하길”

〈화엄경 사경〉 편찬한 대강백 무비스님

한국 최초로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집필 중인 무비 스님이 〈화엄경 사경〉을 편찬했다. 10월 27일 범어사 연화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비 스님은 사경본을 편찬한 것은 화엄경 강설과 함께 사경 수행으로 더욱 깊이 있게 불자들이 공부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무비 스님은 2014년 4월 〈세주모염품〉을 시작으로 현재 화엄경 총 81권 중 30권까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발행했다. 이번 사경집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발행에 맞추어 모두 81권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발행된 사경집은 1~10권으로 〈세주모염품〉에서 〈화장세계품〉까지 구성돼 있다. 또한 이번 사경집은 처음 사경을 접하는 이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각 한자에 음과 뜻을 달고 한문 문장에는

한글로 풀어 설명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왔다.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는 법공양으로 사경집을 오랫동안 제작했습니다.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사경을 하는 즉시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0권 구성, 초심자 배려

각 한자 음달고 한자로 풀어서

“사경은 참선과 같은 효과”

무비 스님은 “사경은 집중력 뿐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알아 인격의 변화까지 얻을 수 있는 참다운 공부법”이라고 강조했다.

“사경참선이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 불

교에는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 사경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사경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돕고 지혜를 불러 일으킵니다.”

한편, 1943년 영덕에서 출생한 무비 스님은 1958년 출가하여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구소에서 수학했다. 10여 년 선원생활을 하고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혜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150여 스님과 250여 재가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신금강경 강의〉, 〈직지 강설〉, 〈법화경 강의〉, 〈임제록 강설〉 등 40여 권의 책을 썼으며 현재 80권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집필 중이다.

하성미 기자



대강백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발행에 맞추어 사경집 81권을 만들 계획이다. 기자 간담회에서 스님은 화엄경의 보살도 실천과 사경 수행을 강조했다.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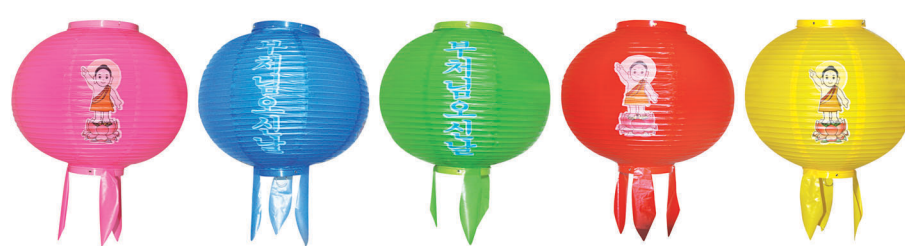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등·영구위패 시공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x308mm)
29호 12절 13매 (257x263mm)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